

17. 유대의 포로와 하나님의 섭리

2012. 4. 22.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유대의 포로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롬11:11,12]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2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총만함이라도.

1. 지난 시간까지 역사적 사건을 예언한 예언들의 배후적 사실들을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예언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셔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지요. 그 일을 담당하도록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셨는데, 그들이 실패하게 되자 마침내 포로가 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누었거든요. 국가로 있으면서도 수행하지 못한 그 일을 포로가 되어서 어떻게 수행할 수 있었는지, 그 사실을 이야기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답: 그렇군요.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왕 다음 대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지요. 북쪽은 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로 건국되고 남쪽은 유대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서 유대라는 나라가 됩니다. 남북에 계속 다투며 지내다가 북쪽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하여 그 10 지파는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후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왕들이 일어나면서 남쪽 유대 나라는 명맥을 유지하다가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망합니다. 삼차에 걸친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은 불타고 나라는 사라집니다. 삼차 공격으로 완전히 함락된 해가 느부갓네살 19년입니다.(왕하25:8,9) 삼차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포로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어찌면 독자들 중에 바벨론이 어디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지리적 위치는 지금 이라크입니다. 일차 포로가 느부갓네살 원년인데, 기원전 605년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그의 책에 아주 간단하게 기록했지요. 목사님이 다니엘 1:1,2를 좀 읽으시겠습니까?

[단1:1,2]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던 지 삼 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2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이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하고 포로되는 사실을 간단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많은 내용이 암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단순히 유다가 패배하고 성전 기구 얼마를 빼앗겼다는 기록인데 무슨 특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답: 당연하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이 이방에 복이 되었다고 말하지요.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니엘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왕과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말도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말이지요. 니므롯을 지도자로 세우고 탑을 쌓고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뜻은 신들의 문이라는 뜻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대적하는 집단행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구원사업을 완전히 거절하고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늘에 가려는 시도였지요. 그래서 창10:9에 니므롯에 대하여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라고 기록했는데, 70인 역에서는 여호와 앞에 라는 말은 여호와를 대적하는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탑을 쌓은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백히 했지요.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여 그들을 온 세상에 흠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는데 혼잡이라는 뜻이지요.

3. 바벨론이 니므롯의 바벨탑과 관련이 있나요?

답: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니므롯의 바벨탑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바벨에서 유래한 것은 확실하지요. 그러므로 바벨론은 혼잡의 상징입니다. 인종들이 혼잡하기도 했을 것이지만, 사상의 혼잡이 중심 사상일 것입니다. 언어는 사상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 언어가 혼잡 되었다는 것은 사상의 혼잡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는 사상이 혼잡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죄가 세상을 변질시키는 본격적인 일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것은 혼잡한 사상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안정된 평화가 없어지고 혼잡한 사상이 판을 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 기구를 가져다가 바벨론 신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혼란하고 혼잡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바벨론 신전에 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으로 풀이하며 순수한 하나님 경배에 혼잡을 초래했다는 의미이지요.

4. 참 대단한 추리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쓴 간단한 시작의 말이 그런 엄청난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확대할 수 있는지 좀 얼떨떨합니다.

답: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게 하여 사람들이 구원 얻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의 기록은 이 분명한 의도를 중심에 두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말이 바로 구원의 경륜을 혼잡하게 하여 우상 숭배와 하나님 경배를 올바르게 구분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의도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요. 다니엘서 전체에 이런 사상이 아주 짙게 묻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이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사실을 염두에 둡니다. 아직 1장이 말하는 역사적 시점은 성전이 파괴되기 전이지만, 삼차 침공 때에 성전은 완전히 불타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세력이지요. 다니엘서 후반부에는 하늘의 성전을 파괴하는 사실에 대하여 예언하지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서를 회복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이고, 또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성전의 원상회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또 성전의 원상회복이라고 하면 그것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구원과 성전회복은 같은 의미입니까?

답: 예. 이 사실을 생각하려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소 자체이십니다. 예레미야 17:12,13을 한 번 읽어보지요.

[렘17:12,13]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13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흠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성소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예수님의 몸을 선전이라고 했습니다.(요 2:19~21) 또 계시록 21:22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됨이라고 계시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된 것이지요. 성전은 그 목적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8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소의 목적을 밝혔지요. 한 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 거하기 위한 것이 성소를 짓게 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칭호가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지요.(마1:23) 이 칭호 역시 예수님이 성전 또는 성소라는 것을 가르쳐주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성소로 지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성전의 원상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6. 그렇군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몸을 결코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지켜야 하겠네요. 성경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할 것이라고 하셨지요. 참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답: 목사님의 그 말씀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으려했다는 단1:8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 몸 성전을 정결하게 지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기구는 우상의 전각에 갖다놓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성전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에 와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7. 예, 그 사실은 다니엘 1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중에 다음에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니엘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니까 계속 말씀하시지요.

답: 다니엘서 시작 부분의 내용은 참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바벨론이 사람을 어떻게 골라 쓰는지 잘 보여줍니다.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선별해서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것도 신분부터 잘 골라서 뽑네요. 4절에 기록되었군요. 봅시다.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얼마나 뛰어난 인재를 선택합니까. 인사는 만사라고 말하지요. 뛰어난 사람이 훈련을 받아서 충성을 다하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런 일을 아주 잘하는 것 같군요. 사실 다니엘서에는 바벨론이 현실적 세상의 제국이고 그 통치자가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바벨론 왕의 배후의 세력은 루시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4~14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좀 길지만 목사님이 읽어보시지요.

[사14:4,12~14]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확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5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흠을 꺾으셨도다 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감사합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루시퍼이지요. 루시퍼가 바벨론 왕으로 표상되어 애가를 읊었습니다. 루시퍼는 자기의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선택할 때에 뛰어난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보다 영향력이 훨씬 강하지요. 루시퍼는 솔로몬 같은 지혜 있는 자를 꺾어서 우상의 전각을 만들고 비빈들과 같이 가서 절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활한 지혜로 바벨론에 포로 된 사람들 중에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예부터 사람을 고르는데 신언서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은 사람의 용모와 풍채를 뜻합니다. 흠이 없는 것은 신체에 흠터나 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은 드러난 모습이 잘생긴 것을 뜻하지요. 모든 재주에 통달하고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다는 것은 지력이 뛰어난 것을 나타내지요. 언 서 판입니다. 언어 구사력과 쓴 글씨의 어떠함과 판단력을 고루 갖춘 사람들이지요. 느부갓네살은 사람을 잘 고른 것 같습니다. 그들을 바벨론 교육으로 훈련시켜서 왕을 위하여 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르시는 것을 보면 바벨론이 고른 것과 정반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8. 어떻게 고르시는데 그렇게 신기하다고 합니까?

답: 목사님이 고전 1:26~29을 읽으시겠습니까?

[고전1:26~29]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맙습니다.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나,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지요. 오히려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이런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들이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기 쉽지 않지요. 요즘은 좀 달라졌습시다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천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지요.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은 그들의 신분과 지위와 세상에서의 위치에 안주하면서 구원의 도리를 멸시했습니다. 물론 서양에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부터 상태가 달라지긴 했지만요. 그러나 로마의 이런 조처는 성경의 순수한 진리를 바벨론화 시키는 사단의 전략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연구하게 될 때 그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9.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벨론 왕이 선택한 것 같이 뛰어난 사람들을 선택하면 구원의 도리를 증거하는데 훨씬 유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다 모르긴 하지만 좀 이상합니다.

답: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미 고전1:29에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요.

10. 목사님, 잠깐만요. 그것도 이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 안 됩니까?

답: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모르지요. 성경에 그렇게 계시되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문제의 핵심은 이 세상은 사단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언제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예수님께 와서 이 세상은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요. 구원의 사업에 투신하는 것은 사단의 세상에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그 길을 좋아하지 않지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헌신했다가도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과신하게 되었을 때 사단의 꼬임에 빠졌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육체의 속한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곳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세상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시려는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전 1:26절부터 읽었습니다만 2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강하고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지식이 구비하다고 해도,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구원의 길은 창조의 길입니다. 그것은 이미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을 개선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 실제적인 존재를 상실한 비존재, 즉 존재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존재를 이미 상실한 자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재주와 학문과 지혜와 능력은 결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순순히 따라서 충성할 수 있는 소박한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이나, 저나 어쩌면 애청하시는 분들도 이런 소박한 무리에 속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 아닐는지요?

11.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군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 기도로 마치지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사람을 택하는 표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처럼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주장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